

朝鮮前期의 小說史 檢討*

안 창 수

〈목 차〉

- | | |
|------------------|-------------------|
| I. 소설의 개념과 범주 | IV. 15, 6세기의 작품들 |
| II. 前期의 범위 | V. 17세기 중엽까지의 작품들 |
| III. 건국 초기의 산문문학 | VI. 마 무 리 |

I. 소설의 개념과 범주

김태준은 <조선소설사>에서 “예전 사람들이 律하는 소설의 정의”¹⁾로 소설이 발달해 온 경로를 밝히려겠다고 하고, 說話, 假傳, 雜記(錄), 夢遊錄 등을 모두 소설로 다루고 있다. 이에 비해 조운제는 우리 소설이 <금오신화>에 이르러 시작되었다 하고, 설화, 가전, 잠기(목) 등을 소설의 범주에서 제외시켰다.²⁾

이후 소설사는 대체로 두 가지 입장 가운데 어느 한 쪽의 입장에서 기술되고 있다. 소설이 시대에 따라 다양한 의미의 편차를 나타내던 용어였기 때문이고, 소설의 갈래개념에 대한 연구자들의 견해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두 가지 입장 가운데 어느 쪽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소설사의 기점을 정하는 문제와 연결되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입장을 취하든 위의 양식들은 모두 소설사에서 긴밀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제16차 고소설연구학회에서 발표한 것을 부분적으로 수정한 것임.

1) 김태준, 조선소설사(학예사, 1939, 13쪽).

2) 조운제, 국문학사(동국문화사, 1949).

II. 前期의 범위

17세기 후반부에 오면 우리 소설사에는 국문소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며 독자층을 확대시켜 가고 있었다. 17세기 초에 최초의 국문소설이라는 <홍길동전>이 쓰여졌고, 그보다 먼저 불경계 국문소설로 불려지는 일군의 작품들이 나타났다고 알려지고 있다.³⁾ 임란을 전후한 선조대에도 중국소설을 번역하여 읽기도 했다.⁴⁾ 그러나 이것은 아직 초창기적 현상이었고, 독자층도 궁중이나 일부 사대부가 부녀자들에 국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간에서 국문소설이 읽혀지고 있었다는 <要路院夜話記>의 기록, <사씨남정기>와 군담소설의 등장 등을 종합해 볼 때, 국문소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아무래도 17세기 후반에 와서야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며, 趙泰億의 “諺文西周演義跋”이나 朴斗世의 <要路院夜話記>의 기록으로 보건대, 이 시기에 이르면 일반 부녀자와 하층민들도 소설의 독자로 참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국문소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소설은 이제 모든 계층의 독자들에게 급속도로 전파되며 사회 내에서 자기의 위상을 착실하게 다져가고 있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소설로는 <사씨남정기>와 <창선감의록> 그리고 일단의 군담소설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의 공통되는 특징은 초현실적 세계질서마저 인물도덕이나 인, 의와 같은 이념 수호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인공은 도덕적 선의 절대적 당위성을 실현시키려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고, 도덕적 선의 당위성을 입증시키는 것이 작품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

<사씨남정기> 등의 작품은 도덕적 선이 초현실 세계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고방식의 소산이다. 性情의 문제를 우주론과 접맥시켜 性의

3) 사재동, 불경계 국문소설의 형성과정 연구(아세아문화사, 1977).

4) 김일근, 어간의 제학적 고찰(수필문학연구, 정음사, 1980, 75쪽).

절대성과 불변의 당위성을 입증시키려 했던 성리학자들의 사고방식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이 17세기 후반 이후의 소설에서 본격적으로 문제되고 있었던 것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尊明大義를 주장했던 사정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인조반정을 통해 집권했던 서인 세력은 중세적 질서를 재정비 강화시키려는 쪽으로 정책의 노선을 잡았고, 그 수단으로 禮論과 같은 것을 내세워 인륜도덕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덕규범의 준수는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요청되던 지상과제였던 것인데, 특히 병자호란이 이들의 정책노선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들에 나타나는 이념지향적 특징은 사회, 역사적 삶에 대한 문제의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이전의 소설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던 중요한 특징이다. 이전의 소설 예컨대 <금오신화>나 <홍길동전> 등에서는 삶의 현실 국면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이 작품의 주된 과제가 되며, 이념마저 여기에 종속된다. 이것과 달리 이념지향적 작품도 있었다. 예컨대 불경계 국문소설로 알려진 작품의 경우 불교적 선의 당위성을 입증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초현실 세계가 개입해 불교적 이념 수호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경전의 내용을 작품화한 것으로, 역사며 사회적 삶에 대한 문제의식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17세기 후반 이후의 소설에 나타나는 이념지향적 특징이 당시의 사회, 역사적 삶에 대한 문제의식 위에서 형성되었고, 그 내용도 도덕적 선이라는 윤리적 덕목으로 짜여져 있었던 것과는 구별된다.⁵⁾

이렇게 볼 때 17세기 후반 이후의 소설사는 1. 국문소설이 본격적으로

5) 17세기 후반의 작품들이 인륜도덕의 문제만을 부각시킨 것은 아니다. 작품의 의미를 사회 역사적인 측면에서 해석해 보려는 것 또한 그 나름대로의 강집에도 불구하고 문학을 다른 무엇에 종속시키게 된다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작품의 다양한 의미를 포착하고 그 의미의 전달기법과 문학적 형상화의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해 보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지만, 여기에서는 문제를 그렇게 확대시키지 않았다.

등장하며 일반 부녀자와 하층민들이 소설의 독자층에 편입되기 시작했고, 2. 사회며 역사적 삶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도덕적 선의 절대적 당위성을 입증시키는 것이 작품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었다. 흔히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기점으로 하는 시대구분이 소설사의 마디를 나누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조선 전기의 소설사는 17세기 중엽까지로 잡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Ⅲ. 건국 초기의 산문문학

조선은 고려와 달리 유학을 통치이념으로 내세우며 등장했다. 그러나 고려 후기부터 점진적으로 역사의 일선으로 부상했던 신흥 사대부들이 건국의 주역으로 참여했던 관계로, 건국 초기의 산문문학은 대체로 고려 산문문학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 소설과의 관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傳, 傳奇, 雜記(雜錄), 笑話集 등이다.

1. 傳

전은 입전되는 인물의 행적을 기술할 뿐 아니라 풍부한 문학적 형상화와 허구적 구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탄력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옛부터 산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했다. 더구나 입전되는 인물의 일대기적 행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조선시대의 소설이 〈...전〉이라는 명칭을 갖도록 하기도 했다.

전은 신라 이래 고려조로 넘어오면서도 왕성하게 창작되었는데 이런 전통이 그대로 이어지며 이 첨이 〈저생전〉을, 정이오가 〈성주고씨가전〉을, 강희맹이 〈홍절부전〉을, 성 간과 성 현이 〈용부전〉과 〈부휴자전〉을 지었고, 〈고려사〉열전이 편찬되었다. 전은 설화와 소설을 연결하는 과도기적

양식으로 인정되며 주목을 끌어들였고, 그 결과 한 동안 전의 과도기적 특성을 밝히려는 것이 연구자들의 관심사였다.⁶⁾ 그러나 진화론적 관점이 비판되며 전과 소설이 독자적인 길을 걸어 온 별개의 양식이라는 것이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논의의 방향도 바뀌게 되었다. 무엇보다 전의 양식적 속성을 밝히려는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고,⁷⁾ 문학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의미를 포착해 보고,⁸⁾ 전의 소설화 경향을 살펴 보려는 노력이 나타나기도 했다.⁹⁾

그러나 전과 소설이 별개의 양식이라 하더라도 소설이 전으로부터 문학적 자산을 물려받은 것이 사실이다. 건국 초기의 전은 바로 이와 같은 측면 즉 전이 소설의 등장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이것은 동일한 이념적 맥락 위에 놓여 있었던 려말 신흥 사대부들의 전과 함께 다루어질 때 보다 나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2. 傳 奇

전기는 민간의 설화가 기록문학으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수이전>의 “최치원”같은 작품에 이어, <삼국유사> 소재의 “조신”, “김현감호”, <삼국사기>의 “온달”, “가실” 등의 작품들이 고려시대에 쓰여졌다. 조선 건국 초기에도 成任이 <太平通載>八十卷을 편찬하여 중국과 우리나라의 奇聞異事를 모아 놓았고, 사대부들도 이런 작품을 즐겨 읽었다.

6) 신기형, 가전체문학론 상, 하(국어국문학 15, 17호, 국어국문학회, 1956, 1957).

7) 조동일, 가전체의 장르규정(장암지현영선생 화갑기념논총, 1971).

조수학, 가전연구(여문학 29집, 한국어문학회, 1973).

성기옥, 전의 장르론적 검토(울산어문론집 제1집, 울산대 국문학과, 1984).

8) 박희병, 고려 후기~선조의 인물전 연구(부산한문학연구 제2집, 부산한문학회, 1987).

9) 조태영, 전 양식의 발전양상에 관한 연구(서울대 석사논문, 1983).

이경우, 문집소재 전 양식의 변모양상(한국 판소리·고전문학연구, 아세아문화사, 1983).

전기는 작가의 창작의식이 작용해 이야기를 허구적으로 재구성하여 보여준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랑과 같은 인생의 문제를 통해 삶의 문제를 폭넓게 담아낼 수 있다는 유연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은 사대부들의 문학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그들은 述而不作의 원칙에 의해 있었던 사실을 충실하게 기술하는 데 머무르려 했고, 새로운 역사의 전개에 맞춰 신유학의 이념을 고취하기 위한 글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때문에 전기는 사대부들에 의해 즐겨 읽혀지기도 했지만, 이것은 드러내 놓고 할 만한 일이 못되었고, 허구적 서사화의 영역을 풍부하게 개척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비판적 사대부들에 의해 창작되며 모순에 찬 사회 현실과 대면하고 여기에서 생기는 갈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¹⁰⁾

김시습은 〈岳飛傳〉, 〈豫讓傳〉, 〈伍員傳〉 등 유가 이념에 충실한 작품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유가의 전으로는 자신의 능력을 펴지 못하고 세상과 어울릴 수 없는 데에서 생기는 울직한 심사나 비판의식을 드러낼 수 없었기 때문에 전기소설인 〈금오신화〉를 썼다. 허구적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마저 담아낼 수 있는 전기의 유연성이 작가의 처지와 심중을 밝히는 데 더 적합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때문이다.

그러나 전기는 작가 개인의 창작성이 동후하고, 사회현실을 풍부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설로 인정되기도 한다.¹¹⁾ “최치원”이나 “조신” 같은 작품을 소설로 인정할 경우 소설사의 기점은 몇 세기 위로 소급되어 진다. 그런데 “최치원”이나 “조신” 같은 작품을 〈금오신화〉와 동일한 양식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소설이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다시 던지게 한다. 작품분석과 갈래 이론을 병행시켜 각 작품이 지니고 있는 특징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이것을 우리 소설사의 전

10) 정학성, 전기소설의 문제(황재강·김용직·조동일·이동환 편, 한국문학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82).

11) 임형택, 羅末麗初의 傳奇文學(한국문학사의 시각, 창작과 비평사, 1984).

개에 맞춰 재검토해 볼 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3. 雜記(雜錄), 笑話集

문인들의 주변에서 일어났던 자질구레한 일화나 민간의 풍속, 인정세태, 우스개 소리, 詩話, 說話 등을 모아 놓은 雜記(錄)나 笑話集이 나왔다. 이런 류의 글 또한 고려시대부터 문인들에 의해 심심치 않게 쓰여졌다. 이 인로는 한가한 때의 과적거리라는 의미를 갖는 <과한집>을 편찬했고, 이 제현은 긴 장마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자질구레한 이야기를 모아 놓았다고 하며 <억옹패설>을 엮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이야기 속에 공식적으로는 하기 어려웠던 내면의 진솔한 생각을 담아내고 있다.

잡기나 잡록은 삶의 이면사를 들추어 내고, 공식적으로는 드러내기 어려운 내면의 소리까지 부담없이 담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인들에 의해 즐겨 편찬되었다. 여기에 세상살이에서 생기는 근심과 무료함을 달래 준다는 명목으로 음담패설을 포함해 민간에 떠돌아 다니는 우스개 소리를 모아 놓은 소화집이 나와 인기를 모았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떠돌아 다니는 이야기를 모아 놓은 것이어서 글쓰는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이 스며들 여지가 좁았다. 세상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더라도 남의 이야기에 단편적인 의견을 덧붙일 수 있을 뿐이었다.

전, 전기, 잡기 등은 고려시대부터 산문문학의 중심영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소설은 이같은 문학적 유산 위에서 나타난 것이므로, 이들이 어떻게 관계했으며 소설에 자기들의 자산을 나누어 주었는가 하는 것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양식의 특징이 보다 명료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고, 소설작가들이 선행하는 양식을 받아들였던 상황도 면밀하게 조사되어야 한다.

IV. 15, 6세기의 작품들

15, 6세기는 <금오신화>를 비롯한 초기소설이 성립된 시기이다. 이후의 소설사를 정리할 때 이 글에서 문제삼고 있는 것은 첫째, 前代의 문학양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둘째, 정신사적 측면에서 당시의 사회, 역사적 상황을 어떻게 작품화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다.

1. <금오신화>와 <기제기이>

<금오신화>는 지금까지 발견된 자료 가운데 소설적 체계를 갖춘 최초의 작품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작품은 傳奇的 요소를 풍부하게 갖고 있다 하여 傳奇小說로 불리워진다. 전기에서 많은 자산을 물려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금오신화>의 전기적 특징이 만족할 정도로 밝혀진 것은 아니며, 志怪의 내용을 들어 전기성을 거론하는 오류는 시정되어야 한다. <금오신화> 소재 5편의 작품은 傳, 記, 錄, 志와 같은 양식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이 단순한 이름 붙이기의 한方便이었는지 아니면 그런 양식을 엄두에 두고 붙였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잡기(북)과의 관련성도 검토되어야 한다.

<금오신화>는 현실적인 삶의 구도 속에서 쓰여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작품이 삶의 현실을 중시하는 현실주의적 사고방식에 의해 지배되며 자기를 용납하지 않는 현실에 맞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싸움이 패배로 귀결되는 비극적 결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¹²⁾ 이와 반대로 <금오신화>는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서 벗어나려는 求道的이며 종교적인 사고에 의해 쓰여졌다고 주장되기도 한다.¹³⁾

12) 임형택, 현실주의적 세계관과 금오신화(서운대 석사논문, 1971).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지식산업사, 1977).

13) 최삼룡, 금오신화의 비극성에 대한 조위의 문제(어문론집 22집, 고려대 국어국

김시습은 세상의 질서에 불만을 품고 그에 반발했다. 중이 되어 미친 행동으로 세상을 조롱하기도 했지만 세상을 등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객관적인 거리를 갖고 세상의 문제를 더 치열하게 문제삼고 있었다. 그러나 세상과 어울릴 수 없었던 그는 늘 국외자였을 따름이었고, 不與世合에서 생기는 공허함과 고독한 심사를 佛家의 가르침 속에서 해소하려 했다.¹⁴⁾

〈금오신화〉가 현실주의적 사고와 이것에서 벗어난 求道的 자세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런 복합적 의식세계는 김시습 개인의 의식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당시 소설사의 한 흐름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금오신화〉가 나온 15세기 중엽 이후의 조선사회는 여러 가지 사회적 폐단을 표면화시켜 가고 있었다. 세조의 왕위찬탈과 중종반정 그리고 士禍는 그것이 가시화된 역사적 사건들로 도처에서 불평분자들을 만들어 냈다. 그러나 그들의 불만은 아직 사회적 세력으로 결집되기 어려웠다. 때문에 그들의 불만은 개인적 차원에서 해소되어야 했는데, 현실도피며 구도적 자서는 사회에 대한 불만을 혼자 해소해야 했던 데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企齋記異〉는 신광한(1480~1555)의 작품이다. 이 작품은 〈금오신화〉보다 약 7, 80년 뒤에 나타났지만, 여러 모로 보아 〈금오신화〉의 영향 아래 쓰여진 것으로 추측된다.¹⁵⁾ 세상의 잘못된 횡포로 낙척불우하게 된 인물을 등장시켜 소외된 사람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기재기이〉 역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쓰여져 일정한 저항적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 자신의 삶을 운명에 맡긴다든지 (“하생기우전”) 하여 현실도피적 경향을 띠기도 한다. 그러나 절의의 處士들을 기롱하고 회유하기도 (“안병몽유록”)하는 대목에서는 〈금오신화〉와 달리 현실긍정 내지 안주의 자세를 드러내기도 한다. 〈금오신화〉적 구도에서 쓰여졌음에도 대제학과 의정부

문학연구회, 1981).

14) 김지건, 사문 설잡의 화얼과 선의 세계(매월당—그 문학과 사상,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강원대 출판부, 1988).

15) 소재영, 국문학논고(숭실대 출판부, 1989).

좌찬성 등을 두루 역임하며 숭양받는 생애를 보냈던 작가 신광한의 현실 긍정적 자세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 몽유록계 작품

몽유록계 작품은 갈래구분에서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작품의 교술성과 허구적 서사성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몽유록은 몽유 모티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하는 양식과의 관계가 일찍부터 주목되었다. 唐代의 傳奇에서 근원을 찾아보려 했고, 假傳體, 記夢, 나아가 <금오신화> 등과의 관계가 폭넓게 다루어지며, 몽유 모티프를 갖는 작품들이 우리 문학사에서 하나의 계통을 성립한다는 것을 밝히려는 노력이 기울여졌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 다양한 양식들의 특성이 보다 명료하게 밝혀져야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양식 사이의 수수관계며 변화의 양상이 적출되어야 할 것이다.

몽유록은 양반사회의 모순이 심화되어 가던 시기에 현실비판적 사대부들이 세상에 대한 그들의 관심사를 우의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현실에 대한 포기할 수 없는 집착이 작품 창작의 일차적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환상적 허구를 통해 표출됨으로써 현실도피적이며 원망충족적인 특징을 드러내거나 문제의 심정적 해결에 머무르게 되었다.¹⁶⁾ 김시습과 같이 몽유록의 작가들도 자기들의 문제를 개인적 차원에서 해소해야 했기 때문이다.

3. 심성의인의 작품

심성을 의인화한 것으로 여기에 속하는 작품으로는 <천군전>, <수성지>, <천군연의>, <의승기> 등을 들 수 있다. 이 계열의 작품들도 갈래구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갖고 있지만 선행하는 양식과의 관계에서는 假傳

16) 정학성, 몽유록의 역사의식과 유형적 특질(관악어문연구 2집, 서울대, 1977).

이 전형된 것으로 보여진다. 사대부들에 의해 성리학의 주된 관심사인 심성의 문제가 소설적 구도 속에서 그려짐으로써 이들은 소설을 배격하던 유학자들과 일반 고소설 작가의 중간에서 둘 사이의 거리를 좁혀 주는 역할을 했다는 소설사적 위상을 지니기도 한다.¹⁷⁾

이 계열의 첫 작품으로 알려진 <천군전>이 南 冥의 <神明舍圖>를 보고 쓰여졌듯이 심성의인의 작품은 心經正學의 이론을 소설적 형식을 빌어 표출한 것들이다. 이런 점에서 이념지향적이지만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내용으로 짜여져 사회, 역사적인 문제의식과는 무관하게 쓰여진 것들이다.

그러나 임 제는 <수성지>를 써서 변화를 꾀했다. 임 제는 상당한 재능을 갖고 있었음에도 당시의 정계에 환멸을 느껴 방랑과 詩酒로 소요했던 인물이다 <수성지>는 현실에 대한 그의 비판적 문제의식을 작품화한 것으로 무능한 임금과 문란한 사회상을 그려내고 있다. 그러나 술을 문제의 해결사로 설정함으로써 현실도피적 경향을 드러낸다. 작가의식의 측면에서 <수성지>는 오히려 <금오신화>와 묶여진다고 할 수 있다.

4. 불경 관련 작품

여기에 속하는 작품으로는 <안락국태자전>, <선우태자전>, <금우태자전>, <왕랑반혼전> 등이 있는데, 이들도 소설과 비소설에 대한 논란이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漢譯 佛經이 우리에게 수용, 토착화되면서 많은 불교설화를 낳게 되었고, 이런 바탕에서 위의 작품들이 나타날 수 있었으며, 이들은 다시 <안락국전>, <직성의전>, <금송아지전>과 같은 작품을 파생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⁸⁾

17) 김광순, 의인소설의 사적 전개와 문학적 성격(정규복·소재영·김광순 편, 한국고소설연구, 이우출판사, 1983).

18) 사재동, 불교계 국문소설의 형성경위(이상택·성현경 편, 한국고전소설연구, 새문사, 1983).

영웅의 일생이라는 서사구조와 액자소설적 구조를 갖고 있어 이와 동일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작품이나 다른 양식과의 관계도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이 국내의 창작품인가 하는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고, 결과로 부정적일 때 이들을 우리 문학사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도 함께 살펴져야 할 것이다.

불경에 나와 있는 석가의 생애를 허구적으로 재구성하여 불교적 삶의 이상을 주제로 제시하거나, 염불하면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포교적 내용으로 짜여 있는 것이 이 작품들의 특색이다. 심성의인의 작품들이 心經正學의 이론을 소설적 형식을 빌어 표출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때문에 崇儒抑佛의 시대적 상황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작품은 불교적 善이라는 이념만이 강조되어 있을 뿐, 사회며 역사적인 의미에서의 삶에 대한 문제의식과는 절연되어 있다.

V. 17세기 중엽까지의 작품들

15, 6세기의 작품은 대체로 삶의 현실국면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쓰여진 작품군과 이념 지향적인 작품군으로 나누어지고 있었다. 심성의인과 같은 이념 지향적 작품은 17세기 이후에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와서 소설은 사회 역사적인 삶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작품이 주류를 이루며 사실성의 획득이라는 중요한 특징을 드러낸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며 삶의 현실국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대되었던 탓이다.

1. 〈홍길동전〉과 〈최고운전〉

〈홍길동전〉은 최초의 국문소설이라는 것으로 소설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는데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문소설의 등장은 부너

자와 서민 독자층의 형성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이들은 사회진출에 제약을 받고 있었기에 글을 배워야 할 동기가 적었고, 따라서 독서의 기회도 제한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궁중이나 사대부가의 부녀자들에게 국한되었더라도 독서의 기회는 열려져 있었고, 이들은 열녀전같은 것을 통해 일찍부터 소설의 잠재적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었다.¹⁹⁾ 최초의 국문소설 문제는 서지적인 문제와 소설 독자층에 대한 연구를 병행시켜 해결해야 할 것이다.

〈홍길동전〉이 〈수호전〉을 모방한 작품이라는 것이 李 植 이래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그러나 신화와 서사무가 민담 등에서 나타나는 영웅의 일생이나 전기적 유형이라는 구조적 틀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해서, 〈홍길동전〉이 우리의 문학적 토양에서 나타난 것임이 입증되며 이들과의 관계가 자세하게 밝혀졌고,²⁰⁾ 이후 영웅소설이라는 작품군을 형성시켰다는 것이 논증되었다.²¹⁾ 뿐만 아니라 연산군대의 실존 인물이었던 洪吉同이나 기타 농민저항을 주도했던 민중 영웅들의 이야기가 작품 형성의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 논증되기도 했고,²²⁾ 출생-비운-역경-회운-행운으로 이어지는 고소설의 전반적 이야기의 틀이 〈삼국사기〉 열전에서의 것과 같다고 하여,²³⁾ 〈삼국사기〉 열전 나아가 傳記와의 관계가 검토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같은 연구의 결과는 어떤 작품과 선행하는 양식이 결코 단선적으로

19) 우재제, 열녀전의 수용양상 고찰(한국고소설연구회 편, 한국고소설의 조명, 아세아문화사, 1990).

20) 조동일, 영웅의 일생 그 문학사적 전개(동아문화 10집, 서울대, 1971).
김영규, 한국민속과 문학연구(일조각, 1971).

21) 조동일, 영웅소설 작품구조의 시대적 성격(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22) 김동욱, 홍길동전의 국내적 소원(이승녕박사 송수기념논총, 1968).
임형택, 홍길동전의 신고찰(창작과 비평 42, 43호, 창작과 비평사, 1976, 1977).

23) 윤영옥, 삼국사기 열전 〈김유신〉고(동아문화 14, 15 합병호, 영남대 동아문화연구소, 1974).

관계맺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홍길동전〉은 적서차별의 철폐를 주장하고 탐관오리를 징계하는 등의 내용으로 강렬한 사회의식과 비판의식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길동이 조선을 떠나 울도국으로 가고, 조선 왕에게 표문을 올려 저항의 대상이었던 기존질서를 긍정하기도 함으로써 현실도피적 경향과 비판의식의 상실을 드러내기도 한다. 정신사적인 면에서 〈금오신화〉와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문제가 寓意적으로 표출되지 않고 직접 다루어짐으로써 〈금오신화〉가 따라올 수 없는 사실성을 성취하고 있다. 사회 역사적 모순이 심화되며 우의적으로 드러내기에는 현실국면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이 너무 절박했고, 일반 민중들의 삶이 전체적으로 위협 받으며 그들의 사회의식이 전반적으로 상승되어 작가도 이제 더 이상 고독한 예외자로 머무르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불만의 동조세력이 형성됨으로써,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개인적 차원에서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 놓고 표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최고운전〉은 최치원이라는 실존 인물의 생애를 영웅의 일생이란 구조에 따라 배열하고, 그의 神異性 내지는 영웅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다양한 설화들을 끌어들여 이루어진 작품이다. 실재했던 인물의 생애를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의 허구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홍길동전〉이 민중영웅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에도 순전한 허구적 창작물인 것과 대비되며, 〈임경업전〉같은 작품의 효시가 된다. 다양한 설화를 동원해 최치원의 신이성을 부각시킨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중원 세력의 위협에 놓여 있던 약소민족이었다는 역사적 실제 상황을 뒤바꿔 놓는 데 기여하고 있다.²⁴⁾ 작품의 傳奇的 성격이 사실을 허구화한 소설에서 차지하는 역할에 대한 보다 면밀한 고찰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최고운전〉은 親唐의 인물이었던 최치원을 反唐의 인물로 내세워 중국 천자의 오만한 야욕을 분쇄시켜 버림으로써 사대교린을 주장했던 사대부

24) 윤영옥, 최고운전고(영남어문학 3집, 영남어문학회, 1976).

들의 정책노선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이 작품이 비판적 사대부에 의해 쓰여져 일반 민중들의 반중화적 민족의식을 수렴하며, 세상의 질서를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²⁵⁾ 나라를 위해 대단한 공을 세웠음에도 오히려 조국인 신라임금의 박해를 받아 가야산에 들어가 不復還焉했다는 결말은 지배체제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이 지니고 있던 한계를 보여주기도 한다.

2. 〈운영전〉과 〈주생전〉

〈운영전〉은 꿈을 매개로 한 액자구조를 지니고 있어 〈침중기〉나 〈남가태수전〉, 〈삼국유사〉의 “조신”같은 전기작품 그리고 몽유록과의 관계가 검토되었다.²⁶⁾ 궁중에서 일어났던 남녀의 애정문제를 다루고 있어 〈상사동기〉와 같은 아류작을 낳기도 했지만 사회 관습상 이런 작품이 자주 쓰여 지기는 어려웠다.

〈운영전〉은 본능적 삶의 욕구를 억압받으며 살아야 했던 운영이 사회적 장벽에 맞서 김진사를 만나 사랑을 이루려 했지만 그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 희생되어야 했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궁녀가 외간 남자를 가음으로 사랑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였는데,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고 발각되자 이에 맞서 자기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저항했다. 사기의 목숨을 버려 가면서까지 사회의 장벽과 정면으로 맞서는 운영의 행위는 어느 정도의 현실도피나 타협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운영전〉은 임진왜란 이후 분출되어 나오던 개인의 욕구가 사회적 장벽과 부딪치는 한 전형성을 보여주고 있다.

25) 정병욱, 최문헌전에 대하여(한국 고전의 재인식, 홍성사, 1979).

성현경, 최고운전연구(영남대 문리대학보 11집, 1978).

26) 치용주, 몽유록과 몽자류소설의 동이에 대한 고찰(청주여사대 논문집3집, 1974)

서대석, 몽유록의 장르적 성격과 문학사적 의의(한국학논집 3집, 계명대 한국학연구소, 1975).

〈주생전〉은 권 필이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원군으로 조선에 출병했던 주생이라는 이에게서 들었던 그의 기구한 인생살이를 기술한 것이다. 남의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옮겨 놓는 수법을 취한 것이나 비극적으로 종결되는 남녀 사이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 것이 〈운영전〉과 같다. 남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기술하는 식의 수법은 동시대의 작품인 〈최척전〉에도 보이는데, 사실을 기록하여 전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며, 작품의 사실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주생전〉은 남녀의 애정갈등을 통해 인간들의 이기적 애욕을 문제삼고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거대한 운명의 힘에 밀려서 갈수록 열세에 물리는 한 인간의 비극적 운명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²⁷⁾ 그러나 주생의 삶을 비극적으로 몰아간 것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의 장벽, 자신의 이기적 욕심, 전쟁과 같은 것들이다. 이기적 욕심은 인간이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자기 함정이고, 사회의 장벽과 전쟁은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의 횡포이다. 이들은 운명으로 불려질 수 없는 것들이다.

사회적 모순이 갈수록 심화되며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고 이것이 한 원인이 되어 일어난 전쟁(임진왜란)으로 개인이 더욱 더 왜소해져 가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주생의 비극적 삶의 도정은 대다수 우리 민족이 걸어가던 길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주생전〉은 남녀의 사랑이라는 문제를 통해 역사적 삶의 무게를 가늠해 보려 했던 작품이다. 그러나 역사적 삶에 대한 자기 인식이 남녀의 사랑이라는 낭만적 색조에 싸여 그 모습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독자들은 주생의 삶에 운명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27) 소재영, 권필과 그의 문학 (이우출판사, 1983).

김일렬, 주생전소고(어문론총 11호, 경북대 국문과, 1977).

3. 〈최척전〉과 〈유연전〉

〈최척전〉은 전쟁으로 헤어졌던 가족이 갖은 우여곡절을 겪은 뒤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어우야담〉에 있는 “홍도전”을 소설화했다고 하기도 하지만 단정지를 수 없다. 만나고 헤어지는 사건전개를 전쟁이라는 긴급사태와 맞물리게 해서 긴장과 흥미를 자아내고 있고, 전쟁으로 인한 참상을 묘사하는 대목이 너무도 절실히 왜란을 겪지 않았던 사람의 심급도 울릴 만한 호소력을 지니고 있다. 전쟁으로 인한 민족의 수난을 작가의 체험에 입각해 다루었기에²⁸⁾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최척전〉이 전쟁으로 인한 민족의 수난상을 다루고 있지만 그들에게 가해지는 고난의 사회 역사적 의미의 망을 헤쳐 보려 한 작품은 아니다. 부여된 현실은 일단 그것대로 인정하면서 거기에 대처해 나가는 인간들의 성실한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가족이 전쟁으로 이합집산하는 과정을 충실하게 서술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작품은 오히려 민족의 수난상을 사실적으로 그려 낼 수 있었고, 당시 우리의 사회 역사적 삶을 문제삼을 수 있었다. 창작기법의 면에서 〈주생전〉과 잘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유연전〉은 이항복이 선조 임금의 명을 받아 쓴 것으로, 유 연이란 사람이 형을 죽이고 재산을 가로 채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희생됐던 실제 사건을 다룬 작품이다. 실재했던 사람의 행적을 다루어야 하므로 傳을 지으려고 했지만, 사건을 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인물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부각시키고 인과관계에 따라 사건을 다시 배열하기도 함으로써 소설이 되었다.²⁹⁾ 관청에서의 송사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 조선 후기에 다수 나타

28) 민영대, 조선조 사실계 소설연구(한남대 출판부, 1991).

29) 이수봉, 유연전 연구(호서문화연구 3집, 충북대, 1983).

이현홍, 실사의 소설화(한국고소설의 조명, 한국고소설연구회, 아세아문화사, 1990)

나게 되는데 이들과 <유연전>과의 관계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유연전>은 유연의 억울한 죽음을 달래 주고 관청의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쓰여졌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권선징악의 주제만 선명하게 드러내면 되므로 문제를 속속들이 파헤치지 않아도 좋았다. 그러나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해야 한다는 작가의식이 작용하며, 재산을 탈취하기 위하여 같은 가족 구성원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인간의 잔혹함, 권력자와 결탁한 관리들의 전횡과 부패, 그 가운데에서 억울하게 죽어야만 했던 힘없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다.

Ⅵ. 마 무 리

먼저 소설의 개념과 범주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 견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둘 사이의 기리며 관계를 어떻게 조정하고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17세기 중엽은 우리 소설사에서 중요한 한 마디가 된다는 것을 밝혀 보았다.

전국 초기의 산문문학은 대체로 고려 산문학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15, 6세기의 소설은 크게 볼 때 현실적인 삶의 문제와는 무관하게 이념 지향적인 작품군과 현실적인 삶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작품군으로 나뉘어지며, 17세기에 와서 그 가운데 후자에 속하는 작품들이 주류를 이루며 사실성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소설사가 단순한 편년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므로 양식사와 정신사의 측면에서 소설사의 맥을 잡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시켜 史의 기술에 필수적인 시대구분의 마다들을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도 계속 문제되어야 한다.